

## 30주년 축하글

### 학회지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는 거의 40년 전인 1970년대 말엽에 성립하였습니다. 학회지 『제임스조이스저널』이 창간된 것은 세월이 좀 더 지난 198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한국영어영문학회’가 의도적으로 적극 계도하여 많은 소학회가 일거에 태동한 것이 1990년대임을 생각하면 학회도 학회지도 한 발걸음 앞선 행보로 시대의 어떤 기운에 동참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임스조이스저널』은 각별한 학술 의욕과 애정의 소산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나 지금이나 학회의 소중한 면면한 자산입니다. 그만큼 부침의 곡절도 따랐습니다. 특히 1987년 제1집 창간호를 펴낸 이후 초창기 한참이 그랬습니다. 의도한 연간은 커녕 격년간도 버거운 과업이었습니다. 그래도 물러섬 없이 용맹정진하였고 이내 보람이 찾아왔습니다. 세기말에서 새천년으로 넘어가는 어간에 면모를 일신하고 크게 도약하는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착실한 연간 정기간행이 결국 실현되고 이내 매년 2회 곧, 여름의 1호와 겨울의 2호를 펴내는 이를테면 비약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새천년을 맞으며 학회지가 외양만 번듯하게 일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과 내용을 이끌고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학술담론의 여건이 질적 도약을 하였습니다. 영문 국제호 발간이 한가지 사례입니다. 학회는 2004년 블룸의 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조이스와 인문학”이라는 명목을 걸고 꽤 큰 규모의 첫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그 성과를 당년의 영문 국제호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그 이후로 한중일을 중심으로 그 규모를 줄인 격년제 국제학술대회를 경영하고 그 성과로 당년의 제2호 학술지를 밑받침하였습니다.

조이스학회의 자랑 하나는 착실한 독회의 전통입니다. 새천년 들어서면서 시작된 율리시스 독회가 10년 100회를 넘겨 대작의 공동 정독을 끝냈고 지금은 목

하 『피네간의 경야』 독회가 진행 중입니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독회 특유의 담론이 어떤 화학반응을 거쳐 학회지의 성과로 표출되는지 분명하게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 간에 일정한 상호작용이 있고 또 그것이 건강하고 중요한 작용임은 확실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래알 속에 세계를 담은 조이스 스타일이 독회와 특별히 잘 맞는 궁합이지만, 특기할 점은 작가 특유의 세부가 맹목으로 함몰하는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안으로 열리어 확장하는 깨우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골똥히 침잠하는 조이스와 풀어서 대화하는 조이스가 한 자리에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전문 전공자들과 함께 독회에 임한 뜻밖의 관심자들, 곧, 고전학자, 외교관, 의사, 악기상 등과 같은 참가 인사들의 면모의 다양함이 이 부분을 에둘러 반영하는 듯합니다.

학회지의 일정 부분은 버지니아 울프 관련 논문입니다. 울프학회와 조이스학회 두 소학회 사이의 좋은 협력의 소치입니다. 두 작가는 매우 다른 개성을 가졌지만 생물연대가 우연히 같은 현대주의 사조의 중추로서 그 정신의 상보적 구현자입니다. 두 작가의 전문 관심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학술 경영의 지혜이고 좋은 우정입니다. 울프학회에 경의를 표하고 함께 학회지의 연륜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두 학회의 협업 자체가 전문으로 천착하되 세계 속으로 열여가는 열린 인간화 정신의 징표일 것입니다. 당연히 학회지의 자산이고 성취의 일환입니다.

끝으로 학회지 창간 30주년을 맞아 그 경위와 성과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 토막의 감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십년 전 학회의 창립이 그러하였듯 삼십년 전 학회지의 창간도 김종건 교수 한 분의 비상한 열정의 소산이었습니다. 큰 과장 없이 출발이 그러했습니다. 삼십년은 사람의 일생이라면 한 세대의 세월입니다. 발간물 자체가 사람은 아니지만 발간을 감당하는 주체는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만큼 공부한 내용도 풍성해졌습니다. 학술 담론의 여건이 은연중 바뀌었습니다.

셋강의 새로운 물이 여기저기 끊임없이 큰 강에 합류하듯 연년세세 학술의 신진대사가 사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펴내는 학회지 30주년 기념호, 기술적으로 『제임스조이스저널』 제23권 1호는 한 세대 학술의 신진대사의 징표가 되는 셈입니다. 제2세 학자들의 태동에 상응하는 경사를 목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깊고 넓고 의욕에 찬 집단지성을 기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회지 『제임스조이스저널』 발간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6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길중 삼가 씀